



2017 대선정책 트렌드리포트

블라인드 설문조사 분석

청년이여는미래

2017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김없이 수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무엇이 정말 청년을 위한 정책일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청년의, 청년을 위한, 청년에 의한 정책 평가와 분석으로
<2017 대선정책 트렌드 리포트>를 발간합니다.

그 첫 번째 리포트(총 2회 中)에는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를 담았습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청년이 평가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정답이라 생각하여
4월 3~4일에 걸쳐 전국 20~30대 청년 500명을
설문하고 연구한 내용입니다.

더 나은 대선공약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청년이여는미래

01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

02

영역별 정책 순위 1~10위

03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분석

붙임_ 설문조사 양식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7.04.03 ~ 04.04 ▶ 조사대상 전국 20~30대 청년 5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구글 설문

1.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후보 : 문재인

- ✓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창출 ↑
- ✓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공기업 민간용역 33만 6천개 → 공공일자리로 전환



2.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

후보 : 유승민

- ✓ 2018년부터 연평균 약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 ✓ 영세업체 경우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지원



3. 칼퇴근법

후보 : 유승민

- ✓ 돌발 노동(퇴근 후 SNS통한 업무지시) 제한
- ✓ 퇴근 후 최소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 ✓ 초과근로시간 제한



4.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후보 : 안철수

-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 지원
- ✓ 매년 최대 10만 명으로 5년간 50만 명이 혜택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

▶조사기간 : 2017.04.03 ~ 04.04 ▶조사대상 전국 20~30대 청년 500명 ▶조사방법 : 온라인 구글 설문

5.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후보 : 유승민

-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
- ✓ 대기업부터 순차적 도입



6. 5-5-2년으로 학제개편

후보 : 안철수

- ✓ 만 3세부터 의무교육 시작
- ✓ 유치원 2년-초등 5년-중학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대학교 4년 또는 직장



7.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후보 : 문재인

- ✓ '서울대·지방 국공립대학 공동입학·공동학위제'
- ✓ 함께 입학하고 공통 커리큘럼으로 배우며, 여러 캠퍼스를 오가면서 공부한 뒤 같은 졸업장 발급



8.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지원

후보 : 안철수

- ✓ 4차산업 인재 2022년까지 10만 육성
- ✓ 창업 육성 '테스트마켓' 설립
- ✓ 창업 실패자 '주용 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간 : 2017.04.03 ~ 04.04 ▶ 조사대상 전국 20~30대 청년 500명 ▶ 조사방법 : 온라인 구글 설문

9.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 창출

후보 : 문재인

- ✓ 법정 노동시간 준수
- ✓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 ✓ 아이 둔 엄마, 아빠 유연근무제
(근무시간 오전10시-오후4시)



10.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후보 : 홍준표

- ✓ 1단계 : 교육복지카드 지급
- 2단계 :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 3단계 : 기숙사·어학연수 기회 제공
- 4단계 : 좋은 일자리 서민 자녀 우선 채용



연관성을 찾기 힘든 대선주자 지지율과 정책 점수

“내일 대선이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라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결과

안철수 33.4%, 문재인 26.2%, 홍준표 13.6%, 유승민 10%, 기타 16.8%

- ✓ 모든 정책을 비교해볼 수는 없었기에 조사의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지율 또한 절대적인 수치라 보기는 어려우며 큰 틀에서 정책과 비교해본다는데 의의를 두었으면 한다.
- ✓ 전체적으로 안철수와 문재인 지지율은 높게 나왔지만, 비교적 낮은 점수와 순위를 기록한 정책들이 있었다.
 - ▶ 문재인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 전 영역 10위, 최하위)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 현실가능성 8위, 미래지향성 9위)
 - ▶ 안철수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보장 - 현실가능성 9위, 미래지향성 8위)
(5-5-2년으로 학제개편 - 청년공감성 9위)
- ✓ 유승민 지지율은 네 후보 중 가장 낮게 나왔지만, 정책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와 순위가 나왔다.
 - ▶ <칼퇴근법 - 미래지향성 1위, 청년공감성 1위>
 - ▶ <최저시급 '3년 내 1만원 달성' - 청년공감성 2위>
- ✓ 네 후보 모두에게 공정한 분량과 기회를 할애하고자 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확대 정도를 제외하고는 청년과 관련 있는 공약을 찾기가 어려웠다.
홍준표 지지율은 13.6%를 기록했다.

<영역별 정책 순위>

순위	현실가능성	미래지향성	청년공감성
1	민간주도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지원 안철수	칼퇴근법 유승민	칼퇴근법 유승민
2	서민 자녀 4단계 교육 지원 사업 홍준표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 창출 문재인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 유승민
3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 창출 문재인	민간주도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지원 안철수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 창출 문재인
4	5-5-2년으로 학제개편 안철수	5-5-2년으로 학제개편 안철수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유승민
5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유승민	서민자녀4단계 교육지원사업 홍준표	민간주도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지원 안철수
6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 유승민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 유승민	서민자녀4단계 교육지원사업 홍준표
7	칼퇴근법 유승민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유승민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 80%수준 보장 안철수
8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문재인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 80%수준 보장 안철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문재인
9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 80%수준 보장 안철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문재인	5-5-2년으로 학제개편 안철수
10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문재인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문재인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문재인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재활용된 문재인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 문재인



✓ 특히 현실가능성(1.92점) 점수가 낮게 나왔다. 대학서열과 입시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공약으로 보이나, 입시위주 교육과 학벌만능 사회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다. 서울대·지방 국공립대를 하나로 묶어 연합 대학을 만들더라도 연고대, 포스텍, 카이스트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는 계속될 것이다. 서울대생 아닌 청년들도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야지, 모두를 서울대생으로 만들 일이 아니다. 이러한 반발로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려다 후퇴한 바 있다.

2. 선거 때마다 나오는 허세 공약에 대한 거부감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 안철수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 문재인



- ✓ 일자리 〇〇만개 창출, 〇〇원 지급'류의 선거 때마다 나오는 허세 공약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어디서 가져오고, 어떻게 공약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확인과 검증이 어렵다.
- ✓ 안철수의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의 80%수준 보장>은 5년 후는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공약으로 보인다. 임금을 정부가 직접 지원해줌으로써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과 오히려 중소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 ✓ 문재인의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은 청년공감성에서도 상당히 낮은 점수(2.78점 8위)를 받았다. 대상자인 청년들조차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공약으로 보인다. 현 공무원 100만명인 상황에서 공공일자리 81만개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공무원 아닌 청년들에게는 헬조선을 만드는 길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결과분석>

3.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견제심리 '안철수 <5-5-2년으로 학제개편>'

5-5-2년으로 학제개편 - 안철수



✓ 청년이여는미래가 꼽은 10대 청년공약 중 안철수의 <5-5-2년으로 학제개편>은 청년공감성 9위를 기록했다. 만 3세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며 현재 초중고대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인데, 그 정점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공감을 사지 못했다. 정권마다 바뀌는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견제심리로 보여진다. 현실가능성과 미래지향성은 다른 공약 평균 점수와 비슷하게 나왔다.

4.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한 청년들



✓ 점수가 낮게 나온 '일자리 ○○만개 창출, ○○원 지급'류의 공약과 단순 비교해보았을 때, 일자리와 임금의 양보다 일과 삶의 질적 변화에 대한 요구를 읽을 수 있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시작한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해볼 수 있었다.

5. 공약에 대한 사라진 기대감

✓ 청년이여는미래가 꼽은 10대 청년공약 중 안철수의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지원>은 현실가능성 1위를 기록했지만 2.88점으로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었다. 10가지 공약 모두 현실가능성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10가지 공약 현실가능성 점수가 대체로 낮았다. (최고 2.88점, 최저 1.92점) 공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반복되는데서 오는 낮은 기대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7 대선정책 블라인드 설문조사>

본 설문은 2017 대선 정당별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을 블라인드 형식으로 정리한 설문조사입니다.
각 정책을 현실가능성, 미래지향성, 청년공감성으로 구분해 투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10문항)

- 투표기준 -

- ①현실가능성: 현실적으로 공약이행이 가능할까?
- ②미래지향성: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형 정책일까?
- ③청년공감성: 청년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정책일까?

1.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

- 공무원 일자리 17만 4천 개 창출 ↑
-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 공기업 민간용역 33만 6천개 → 공공일자리로 전환

2.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

- 2018년부터 연평균 약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최저임금'
- 영세업체 경우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지원

3. 칼퇴근법

- 돌발 노동(퇴근 후 SNS통한 업무지시) 제한
- 퇴근 후 최소 11시간 휴식시간 보장
- 초과근로시간 제한

4. 5년간 취업한 모든 청년,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 보장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2년동안 1,200만원 지원
- 매년 최대 10만 명으로 5년간 50만 명이 혜택

5.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
- 대기업부터 순차적 도입

6. 5-5-2년으로 학제개편

- 만 3세부터 의무교육 시작
- 유치원 2년-초등 5년-중학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대학교 4년 또는 직장

7.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 서울대·지방 국공립대학 '공동입학·공동학위제'
- 함께 입학하고 공통 커리큘럼으로 배우며, 여러 캠퍼스를 오가면서 공부한 뒤 같은 졸업장 발급

8. 민간 주도 4차 산업혁명을 정부가 지원

- 4차산업 인재 2022년까지 10만 육성
- 창업 육성 '테스트마켓' 설립
- 창업 실패자 '주홍 글씨 지우개 패키지 제도'

9.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 일자리 50만개 창출

- 법정 노동시간 준수
- 연차휴가 사용 의무화
- 아이 둔 엄마, 아빠 유연근무제 (근무시간 오전10시-오후4시)

10. 서민자녀 4단계 교육지원사업

- 1단계 교육복지카드 지급
- 2단계 성적 우수 장학금 지급
- 3단계 기숙사·어학연수 기회 제공
- 4단계 좋은 일자리 서민 자녀 우선 채용

청년이여는 미래

블라인드 설문조사 분석

20170410